

협회소식 / 111

건축계소식 / 113

해외잡지동향 / 119

통계(설계도시신고현황) / 125

협회소식 KIRA news

**ARCASIA FORUM 10,
9월 13일 개막**

자격상호인정 등 공동관심사 논의,
회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 기대

우리 협회(회장 이의구)는 오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 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 소속 16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가하는「제 10차 아카시아 포럼 (ARCASIA Forum 10)」을 개최한다.

‘건축에서의 기술과 전통(Technology and Tradition in Architecture)’을 주제로 한 이번 국제포럼에는 약 7백여명의 각국 건축사와 협회관계자, 일반참가자 등이 참가해 최근 국제 현안으로 떠오른 건축사자격의 상호인정 문제 등 공동 관심사에 관한 깊이있는 논의와 함께 건축관련 정보 및 기술 교류를 갖는다.

또한 포럼기간중에는 아카시아 이사회(ARCASIA Council Meeting)와 아카시아 교육위원회(ACAEE Meeting) 워크숍 등의 정례회의가 개최되며 아카시아건축상 시상, 전시회, 친선의 밤, 건축시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함께 펼쳐진다.

건축분야에 있어 아시아의 입장을 대변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아시아건축사협의회(약칭: 아카시아)는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인도, 중국,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등 아시아 16개국 건축사단체들이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협의체는 매년「아카시아 이사회」와「교육위원회」등 주요 의결기구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와 국제적 현안문제들에 있어 국제사회의 흐름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하고 있는 본 협회는 올

해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가 국내 건축계에 새로운 활력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한국건축의 위상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기간중에는 국제건축사연맹(UIA) 회장 등 건축계 유명인사를 비롯해 지명도 높은 외국 건축사들이 상당수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많은 건축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서울 국제포럼은 앞서 지난해 11월 스리랑카에서 열린 아시아건축사대회기간중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차기 포럼유치를 위해 열띤 경합을 벌인 끝에 99년 제10차 포럼을 한국에서 개최기로 아카시아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행사가 국내 경제의 어려운 여건하에서 개최되는 만큼 건축경기의 불황과 협회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행사를 치뤄야하기 때문에 부득이 부족분을 협찬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시도건축사회 회장단에서 지원하는 후원금과 회원 개개인의 후원금 그리고 건축관련업체에서 지원하는 후원금 등이 있으나 보다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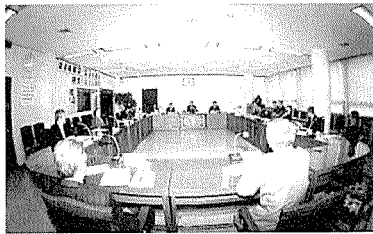
아울러 이번 행사는 최근 우리 건축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간 건축사자격 상호인정문제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입장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와 함께 WTO 시장개방 체제에 대비한 각국의 정보교류 차원에서 치뤄지는 행사이니 만큼 이번 행사가 성공리에 치뤄질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그리고 많은 참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이번 포럼기간중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COEX(강남구 삼성동소재) 전시장에서「99한국국제건축자재 및 설계장비기자재전」을 개최한다. 대한건축사협회와 코엑스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자재 전시회는 자재정보 및 기술교류를 통해 국내건축자재와 설계장비의 우수성을 널

리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자재전의 수익금 일부를 포럼 개최 행사운영비로 충당기로 하였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한 후원금 모금 결과는 다음호(9월호)건축사지를 통해 게재될 예정이다.

이사회개최

99년 제2회 임시총회
오는 9월 14일 개최



이사회 광경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99년도 정기이사회가 지난 7월 13일(제7회), 8월 10일(제8회)에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의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회

<부의안건>

- 제1회의안: 99년도 제2회 임시총회 개최일시 및 장소 결정의 건
- 개최일시: 99년 9월 14일(화) 16시, 장소는 회장에게 위임기로 함.
- 제2회의안: 예산목간전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국가간 건축사자격 상호인정 대응방안 연구용역비 2천만원, 보조금→조사연구비).

○제8회

<부의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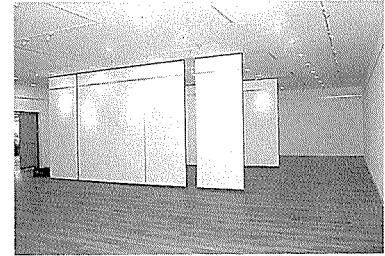
- 제1회의안: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카르텔일괄정리법 시행에 따라 모법인 건축사법 제 26조가 삭제되므로 정관 제5조 제1항 제15호의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의 제정조문 삭제 - 제2호와 제3호는 제1조의 추가부분이므로 제1조가 승인되므로 제2~3조가 같이 승인됨)
- 제2회의안: 윤리규약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회의안: 윤리위원회규정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회의안: 99년도 제2회 임시총회 의제 결정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제1회의안: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제2회의안: 윤리규약개정(안) 승인의 건, 제3회의안: 윤리위원회규정개정(안) 승인의 건)
- 제5회의안: 추대회원 추대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김학경(서울, 한맥건축)외 18명)
- 제6회의안: 전시장 대관료 결정의 건
- 1일 5만원으로 결정.
- 제7회의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카르텔일괄정리법시행에 따른 건축사 보수비용에 관한 문제 등을 논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회장에 위임.

<협의안건>

- 제1호: 99년도 제2회 임시총회 임원 업무 분담에 대한 협의
- 건축사현장 낭독을 송기준감사가 맡는 등 임원업무를 분담기로 함.
- 제2호: 회원단체보험 협약에 대한 협의
- 회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교보생명(주)와 회원단체보험 협약을 체결하되, 가입은 회원 자물에 맡기기로 협의함.

우리협회, 전시관 개관

개관기념 「건축사작품 초대전」 개최



전시관 내부

우리협회는 지난 8월 10일 60평규모의 전시관, 아키텍트 갤러리를 신설 개관하고, 오는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사작품 초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아카시아포럼 참석차 내한하는 각국 건축계 인사 및 외국 건축사들에게 한국건축을 소개함과 동시에 건축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뜻깊은 전시행사가 될 것이다. 전시관은 최신 조명시설을 갖추고 이동식 백보드를 설치해 전시규모에 따라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임대료는 1일 5만원이다. 문의: 우리 협회 총무팀(02-581-5711~4)

99건축사자격시험 접수마감

5,508명 신청, 9월 5일 시행

지난 7월 19일 마감한 99건축사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5천 5백 8명이 접수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4천3백67명보다 26%가 늘어난 수치다. 이번 시험은 오는 9월 5일 실시되며, 응시장소는 8월 25일(수)에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건축사회, 「사용검사 특별검사원제」전담

8월 1일부터 시행

서울시건축사회(회장 우남용)는 4층이하 2천제곱미터이하 건축물의 사용검사시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용검사 특별검사원제」를 전담키로 하고,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7월 28일 우남용서울시건축사회장과 고 건설시장과 면담을 통하여 협의된 것이며, 서울시 건축조례의 개정에 따라 사용검사시 설계·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됨에 따른 것이다.

불교와 유교문화의 옛 건축을 찾아서 ARCASIA Forum-10 Post Forum Tour

금번 ARCASIA Forum-10 Post Forum Tour는 '99건축문화의 해' 행사의 일환으로써 한국방문 외국인 건축사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 기행은 한국건축사를 전공하는 학자들 및 국내건축사와 자리를 같이 하며 현장에서 한국건축의 특성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기행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풍기 소수서원, 성리학을 대성시킨 퇴계선생을 모신 안동 도산서원, 주변 자연과 조화된 건축공간 구성으로 이름난 안동 병산서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인 안동 봉정사 극락전, 고건축의 전형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정자건축의 백미인 봉화 닭실마을 청암정, 대표적인 사대부 가거지인 하회마을과 내암 의성김씨 종택, 대표적인 재실건축 형식을 보여주는 안동 능동재사 등이다. ARCASIA Forum-10 참가자 및 배우자들의 많은 참여 기대한다.

- 시행일시: 1999년 9월 18일(토)~19일(일)
- 기행장소: 안동 하회마을 병산서원, 봉정사, 능동재사, 내암 의성김씨 종택, 도산서원, 청암정, 소수서원, 부석사
- 출발시간: 9월 18일(토) 오전 7시 30분
- 숙소: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지례예술촌
- 참가비: 6만원(USD80)
- 문의처: 거래문화답사연합
(02-708-4206)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
(02-762-8090~1)

건축계소식 archi-net

한국건축 100년전

8월 31일부터 10월 28일까지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와 국립현대미술관이 공동 주최하는 한국건축100년전이 오는 8월 31일부터 10월 28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제1, 제2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전시는 3부 11개 주제로 이루어지며, 개항시기에서 1999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대형 연표가 부착될 도입부를 시작으로, 1부는 개항 이후에서 한국전쟁 직후까지, 2부는 전쟁직후부터 현대까지, 3부는 미래를 내다보는 신사고 등으로 각각 구성된다. 이번 행사의 행사위원장인 방철린(인토건축)씨를 포함한 20여명의 행사위원들이 작품리스트를 취합, 주제에 적합하고 역사적으로 주목받은 건축작품들을 선정해 전시회를 구성하게 된다. 전시회에 출품될 작품들은 스케치, 패널 및 모형, 액자, 입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된다. 전시회와 함께 개막리셉션, 심포지엄, 작가와의 대화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치뤄질 예정이다. 문의: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 사무국(02-762-8090)

이종관 회원,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범죄예방, 자원봉사 공로로



지난 7월 5일 중앙일보와 법무부와 공동 주최한 「99범죄예방 유공 정부포상 및 자원봉사상」시상식에서 서울동부지역 범죄예방 활동에 주력해 온 공로로 이종관(한건종합건축)회원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이 수여됐다. 우리 협회 이사를 역임하기도 한 이회원은 81년부터 비행청소년을 선도하는 일과 인연을 맺고 그동안 1백50여명의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해 매달한차례 이상 상담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노력하는 한편, 비행청소년 20여명과 자매결연을 맺고 취업알선과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특히 불우청소년 3백여명에게는 사재를 털어 장학금과 생계보조비 1억4천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불우이웃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앞장 서 왔다. 또 87년부터는 서울송파지역 범죄예방자원봉사대를 구성, 청소년 유해업소 주변의 범죄예방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 범사회적 운동으로 자리잡는데 숨은 공로를 세우기도 했다. /

김정철회원,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 신입위원장 임명

부위원장에 이명호(중앙대 교수), 이영희(희림건축)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제7차 조직위원회 회의를 거쳐 김정철(정림건축)회원을 신입 조직위원장